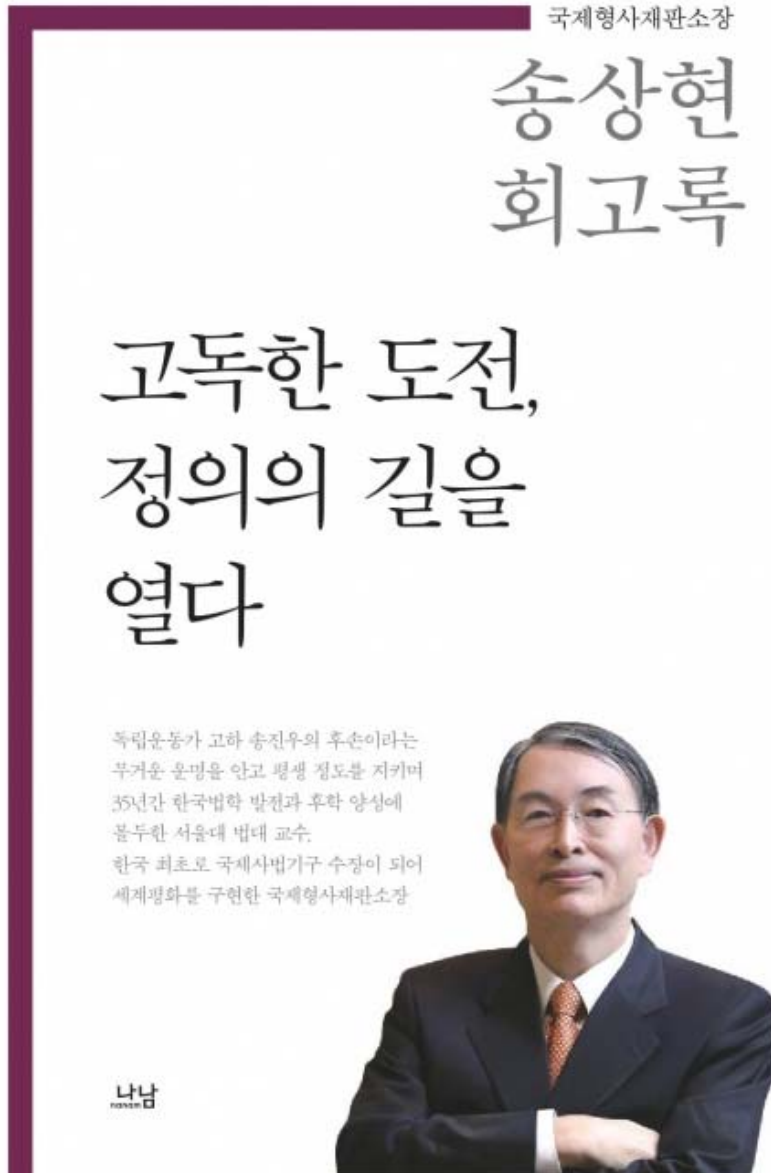


아이뉴스24

#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의 '고독한 도전'..회고록 출간

강길홍 입력 2020.12.22. 11:33

한국인 최초 국제사법기구 수장..12년간 세계평화 구현



'고독한 도전, 정의의 길을 열다' [나남출판]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한국인 최초로 국제사법기구 수장을 역임한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의 회고록이 출간됐다.

송상현 명예교수는 서울대 법대 교수로서 35년간 한국법학 발전과 후학 양성에 몰두했고, 2002년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의 초대재판관, 2대 소장으로서 12년간 봉사하며 세계평화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가 쓴 '고독한 도전, 정의의 길을 열다'(나남출판)는 어린 시절부터 퇴임 이후까지의 평생을 회고하며, 정의의 길을 열고자 노력한 고독한 도전의 여정을 되돌아본 원고지 5천매가 넘는 방대한 기록이다.

송 명예교수는 국내 독립운동의 구심점, 민족지도자 고하 송진우의 후손이라는 무거운 운명을 안고 태어났다. 초등학교 4학년 때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인간은 왜 전쟁을 해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했다고 한다.

경고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2년 고등고시 행정과에 최연소로 합격했으며 이듬해 고등고시 사법과도 합격했다. 서울대 사법대학원 법학석사, 미국 툴레인대학 법학석사를 받은 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수학했고, 미국 코넬대학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2년부터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로서 일본법 의존의 극복을 위해 노력하며 후학 양성에 몰두했다. 또 독일 함부르크대학에서 연구하고, 미국 하버드대학, 호주 멜버른대학 등 해외 유수의 대학에서 한국법을 가르쳤으며, 1994년에는 미국 뉴욕대학 석좌교수로 임명되기도 했다. 법학 연구와 강의 이외에도 사법연수원 운영위원장, 대법원 대법관제청자문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봉사했다.

2002년 정부 추천으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의 초대재판관으로 선출됐다. 그는 "정의를 통한 평화의 실현을 위해 인류에게 봉사하는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고 밝혔다.

2009년에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제2대 소장이 됐고, 2012년 소장 선거에서 재선됐다. 회고록에는 신설 국제기구였던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장으로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고 회원국을 확대하기 위한 과정이 생생히 기록돼 있다.

소장이라고 재판소에서 판결만 내린 것은 아니다. 카다피 아들 사건 때문에 리비아로 갔던 재판소 직원 4명이 한 달 가까이 구금되자 직접 리비아로 날아가 교섭을 통해 이들을 구출했다.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콩고민주공화국 밀림 속 마을, 우간다의 분쟁지역 등을 찾아다니며 전쟁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송 명예교수는 이같은 경험들을 묶어 책으로 낸 것은 국제사회에 진출하려는 후학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그는 "처음엔 회고록을 쓰는 데 무척 주저하였으나, 이 나라를 걱정하거나 특히 국제사회에 진출하려는 꿈을 가진 후학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바꾸게 되었다"며 "내 나라에서 내 마음대로 편히 살 수 있음에도 이를 마다하고 국제사회로 진출하는 것은 나 자신의 스펙트럼을 넓히면서 인류의 공동된 소망인 정의, 평화, 인권, 법의 지배, 민주주의, 개발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의 확립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힘든 길을 택하는 뜻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한다.

강길홍기자 slize@inews24.com